

축사



존경하는 산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개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동초등학교 동창회 회원 여러분!
오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저에게 축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에 앞서 학교의 역사적 기록을 비문에 새겨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개교 100주년 사업을 맡아 수고하신 이병호 추진위원장을 위시하여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모든 경비를 출연하신 이훈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백년전 산동면에 처음으로 공교육기관인 산동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우수한 많은 동문들이 배출되고 졸업생들은 고향과 경향 각지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산업화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우리 동문들도 각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산동면 학생 감소로 대상분교, 부절국민학교 통폐합을 거치며 학생수는 계속 감소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산동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유익한 배움의 전당으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문, 선생님,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27회 소민석

1980년 재경 남원시 향우회장

1981년 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회장

1982년 사단법인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수석부회장

현 주식회사 동인건설, 정보중간 주식회사 회장